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의 기초연구

윤지희* · 염성진**

*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I. 연구배경 및 목적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한다(변병설 등, 2020). 이에 따라 최근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린 뉴딜'이 떠오르고 있으며 세계의 각 국가에서는 꾸준히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함과 동시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19년 기후변화에 맞서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을 제안하여 이행 중에 있다. 한국 또한 2020년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 방향성 제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외 그린 뉴딜의 정책 현황과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이를 통해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외사례 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외사례로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에너지 및 환경정책과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한국판 뉴딜에서는 그린 뉴딜 분야의 주요 내용 및 대표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보완점 및 방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III. 결과 및 고찰

2021년 1월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선언하면서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 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린 뉴딜에 상응하는 정책인 인프라·에너지 및 환

경 정책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는 전력분야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인프라·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인프라, 교통, 에너지, 건축, 혁신, 농업 및 보건, 환경정의 및 공정기회를 정책의 7대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연방예산 1조 7,000억 달러(약 1,980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기후변화와 환경과, COVID-19 극복을 목적으로 유럽 그린딜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은 그린딜을 통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대비 기존 40%에서 50~55%로 상향조정 및 저감할 계획이며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딜은 정책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청정 에너지 공급, 지속 가능한 산업 구축, 건축물 개보수, 스마트 모빌리티,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생물 다양성 보존 및 복원, 오염 제거로 총 8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그 중 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및 수송과 농식품 및 생태계 보존을 주요 정책 분야로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은 유럽 그린딜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약 1조 유로(약 1,380조 원)를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분야로 구분되며, 그 중 그린 뉴딜에 대한 세부내용을 파악한 결과,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 계획의 10대 과제 중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과제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2050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 160조 원 중 약 73조 원을 그린 뉴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2가지 사례와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파악한 결과, 목표와 핵심 분야, 예산의 집행기간 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3개국 모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 아래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인프라, 에너지, 건축, 교통의 분야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러

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정전환을 별도의 분야로 내세우며 공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한국판 그린 뉴딜에서는 공정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그에 따른 기존 인력들의 전환과 산업 구조의 전환에 따른 필요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은 2021년부터 2035년까지 14년 간,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1년 간의 예산 집행기간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계획을 제시한 반면, 한국판 뉴딜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예산 집행계획을 제시하여 비교적 단기적 차원에서 방대한 양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다양한 변화들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인 초점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한국판 뉴딜은 보다 지속 가능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내용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목표,

핵심 분야, 예산 집행기간을 파악하여 각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세부내용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며,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한국판 그린 뉴딜의 보완점 및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아직 각 국가별 그린 뉴딜과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비교하지 못한 부분을 연구의 한계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더불어 국가별로 추후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려 한다.

참고문헌

1. 변병설, 이영성, 윤동근, 최민성, 이희정(2020) 그린 뉴딜 정책,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2. 추미진, 윤동근(2020) 해외 그린 뉴딜 사례의 시사점,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3. 지석환, 남성우, 이은석(2021)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건축공간연구원.
4. 전의찬(2020) 기후위기, '그린 뉴딜'을 거쳐 '탄소중립'으로 해결해야, 한국자치학회.
5. 장영욱, 오태현, 이현진, 윤형준(2020)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윤순진(2021) 한국판 그린 뉴딜의 현재와 과제, 대한전기협회.
7. <https://joebiden.com/clean-energy/>
8. <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
9. <https://www.knewdeal.go.kr/>